



이집트, 글로벌 곡물 허브 구축 추진

(Egypt plans global grain hub, supply minister says)

러시아산 밀 최대 구매국인 이집트는 글로벌 곡물 거래 및 저장 허브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세리프 파루크 공급부 장관이 밝혔다. 해당 발언은 러시아 소치에서 열린 곡물 관련 행사에서 나왔다. 파루크 장관은 이집트가 곡물 저장·가공 중심지로 전환되는 동시에 중동과 아프리카 및 기타 지역을 대상으로 곡물 거래 허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야심찬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아르헨티나, 향후 수년간 대두·옥수수 수출세 단계적 인하

(Argentina to gradually reduce soy, corn taxes in coming years)

세계 주요 곡물 수출국인 아르헨티나는 향후 2년 동안 주요 농산물 수출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루이스 카푸토 경제부 장관이 밝혔다. 현재 24% 수준인 대두 수출세는 2027년 동안 매월 점진적으로 인하되어, 2027년 말에는 21%, 2028년 말에는 15%까지 낮아질 예정이라고 카푸토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설명하였다.

독일산 밀, 6월부터 인도네시아 수출 가능 전망

(German wheat exports to Indonesia possible from June, associations say)

독일과 인도네시아 간 식물검역 협정 체결에 따라, 오는 6월부터 독일산 밀의 인도네시아 수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업계 단체들이 밝혔다. 독일 농업협동조합연합회 DRV와 곡물무역업협회 DAH는 공동 성명을 통해 이번 시장 개방이 독일산 밀 수출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한국 MFG, 사료용 옥수수 약 13만 5천 톤 구매

(South Korea's MFG buys about 135,000 tons corn, traders say)

유럽의 거래소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국의 MFG는 금요일 국제 입찰을 통해 사료용 옥수수 약 13만 5천 톤을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첫 번째 물량은 최대 6만 8천 톤 규모로, 운임 포함 조건 톤당 약 272.39달러에 계약되었으며 추가 항만 하역 비용으로 톤당 1.50달러가 별도로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Thomson Reuters